데스크 시각

시립예술단, 봄은 오는가

김 미 은
문화1부장

포스터 속 퀭한 눈의 한 사내가 정면을 쏘아본다. 당신을 쳐다보는 그 눈빛엔 분노인 듯, 체념인 듯 회한이 담겨 있다. 연극배우 안석환이 맡은 맥베스. 지금 이 사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또 한 장의 포스터가 눈에 띈다. 바닥에 누워 부둥켜안고 키스하는 연인. 아찔할 정도로 에로틱하다. 이들 연인은 각기 로미오와 줄리엣 역을 맡은 광주시립발레단원 보그단 플로피뉴와 구윤지다.

4월, 광주에서 만날 '맥베스 411'과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은 전국 공연계의 화제작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시립예술단이 공동 제작한 두 작품에는 재독 안무가 허용순과 연출가 이해제가 합류, 기대감을 높인다.

전당 개관은 시립예술단에도 도전의 문을 열어 줬다. 예산 등 제작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전당과 협업을 통한 제작비 확보는 '수준 높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풍부한 인적 자원과 함께 무대·의상·조명 등에서 기존 작품과 차별화된 공연을 만나는 건 단원들에게도, 관객들에게도 행복한 일이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립예술단은 '돈 먹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랑거리'여야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광주의 8개 예술단에 대한 시민 평가는 그리 후하지 않다. 시립예술단 역량 강화 목소리가 커지는 요즘, 발레단·창극단·오페라단 신임 예술감독을 누가 맡느냐는 향후 예술단 운명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역량 있는 감독 선임돼야

지금까지 공모 방식을 취했던 발레단은 이번에는 청빙제를 택했다. 시와 발레단 측이 청빙(請聘)위원회를 구성한 후 추천을 받아 후보자를 뽑는 방식이다. 단원의 의사 반영이라는 점에서는 의미 있지만 단원 '입맛'에 맞는 감독을 뽑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40년 역사의 발레단은 지역 무용인이 줄곧 예술감독을 맡아 왔다. 시는 이번엔 연봉을 대폭 올리고 지역은 물론 외국인까지 포함해 예술감독을 찾고 있다. 행정의 미숙함, 발레단 내부 사정을 모른다는 점 등을 들어 외국인 감독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파벌 문제를 해결하고 발레단의 환골탈태를 위해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단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임 감독과 고소·고발 사태까지 치닫고, '공연을 하네 마네' 하는 상황까지도 겪었던 창극단도 파벌 등이 얽혀 내부 사정이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실력 있는 예술감독 선임과 함께 단원들 변화를 촉구하는 의견이 많다. 단원들이야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밖에서 예술단을 바라보는 눈은 냉정하다. 피 말리는 경쟁 사회에 '안일한 태도'가 보인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다. 유학파 젊은 예술인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며 강력한 오디션제를 요구하기도 한다.

특히 노조에 대해 쓴소리 하는 사람들도 많다. 예술단은 제1 노조, 제2 노조, 비노조원으로 구성돼 있다. 일부에서는 "어떤 예술감독이 오더라도 노조 때문에 소신을 펼치지 못할 것"이라고도 말한다. 노조 존재 이유가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는 거라는 건 동의하지만 지나친 이기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노조 '방패' 뒤에 숨는 이를 모른 체하거나, 몇몇에 끌려다니며 예술단 전체 이미지를 망쳐 버리는 일은 하루빨리 끊어 내야 한다.

시립단원으로서의 자부심, 무엇보다 예술가으로서의 자부심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블랙리스트에 항의하며 투쟁했던 이들이 지키고 싶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예술가의 자존심이었을 것이다.

예술단 등 문화 발전엔 시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 중심엔 시장의 문화마인드가 있다. 시장이 취임할 때마다 '시장님 문화마인드는 어떤가' 하는 질문을 받곤 한다. 윤장현 시장을 공연장에서 자주 보고 작은 카페 콘서트에서 만나기도 해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취임 후 행보는 아쉬운 점이 많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광주문예회관 개방형 관장제를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점도 그 중 하나다.

문화 발전 시장 역할 중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특히 '사람'과 관련해선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울 것 같다. 시립예술단 예술감독이 2년 만에 그만두는 예는 거의 없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이번에 재위촉에 실패한 두 사람 모두 시장이 임명했다. 7월 창단하는 오페라단 예술감독 자리엔 특정인 이름이 오르내린지 오래다. "예술감독을 하려면 '모 씨'에게 말해야 한다는 데 맞는 말이냐"는 말도 자주 들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광주문화재단의 인위적 물갈이 역시 실패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엔날레 대표이사와 이사장 선임도 벌써 걱정이 된다. 신임 예술감독으로 어떤 인물이 뽑히느냐가 또 한 번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시립예술단의 가장 강력한 아군은 관객들이다. 한 번 무너진 이미지는 회복하기 어렵다. 관객들의 외면처럼 아픈 것도 없다. 좋은 작품이 올라올 때, 단원들의 땀과 열정이 보일 때 시민들은 언제나 박수를 칠 준비가 되어 있다. 객석에 앉아 열화와 같은 환호성을 보내고 싶다. 무대 위 그대들에게. 예술단의 '찬란한 봄날'을 기다려 본다. /mekim@kwangju.co.kr

은펜칼럼

빈집

고 성 혁
시인

빈집이 갈수록 늘어난다. 우리 집과 담장을 마주한 건넛집도 비어 있다. 주인장이 돌아가시고 난 후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주름살 가득한 노인처럼 무망하게 선 채 수심이 깊다. 그 모습에 처연한 생각이 들어 가슴까지 아리다. 자식들은 서울에서 산다는데 아직 본 적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 내가 스러지고 나면 내 집도 똑같은 모양으로 변할 터이니, 그날을 떠올리면 꿈을 꾸는 듯 허무하다. 나날이 형체를 잃어가는 마당에 무성한 나뭇잎만 떨어져 내리는 묵은 집. 담장은 이미 허물어져 흔적만 남았다. 검게 색이 바랜 대들보가 흘러내린 지붕을 뚫고 나왔다. 그 모습이 늙고 병든 노인네 같다. 그 지붕에는 이름 모를 풀들이 모진 바람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며칠 전 해거름이었다. 숲 앞에 서서 마지막 저녁 햇살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데 고샅으로 발걸음을 떼던 할머니 한 분이 나를 보더니 대뜸 말씀하셨다. "여보시우, 연동댁이 아주 갔어요."

"예?", "쯧쯧, 저 안 골목 노인이 서울에서 치료받는다고 올라가더니 죽어 내려왔어요.", "아이구!" 그 할머니를 잘 알고 있었다. 늘 정갈하시던 할머니. 뜨거운 햇볕도 아랑곳하지 않고 콩밭에서 밤낮으로 김을 매던 할머니의 노란 모자가 생각난다. 대파와 고구마 순과 양파를 갖다 주시던 할머니의 거친 손과, 웃으시면 얼굴 가득 퍼지던 주름살의 형용까지. 할머니가 몹시 그립다.

지난겨울 할머니가 지나가는 나를 대문에 서서 손짓으로 불렀다.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놀랐다. 큰 통에 김장김치가 가득 담겨 있었다. 여름이 되도록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가를 생각하니 비장한 마음까지 들었다. 묘소를 물어 산 귀퉁이 할머니의 새 집을 찾았다. 그곳 생활은 평안하신지 여쭸지만 아무 말씀이 없다.

빈집. 빈집의 모습이 마치 할머니 같다. 삭아가는 지붕이 할머니의 흰 머리 같고 듬성듬성 드러난 대들보와 작은 강처럼 구부러진 서까래는 주름살 같다. 토방에 쌓아놓은 구멍 난 멍석과 할아버지가 주춤주춤 내려 딛었을 섬돌, 마당귀에서 두런거리는 장독들, 수돗가의 깨진 돌과 마당가에 무심히 놓인 화분에서 솟아난 마른 풀대들. 수백 년은 묵었을 팽나무. 그 안에 쌓였을 장구한 세월을 상기하면 어찌 할머니의 굽은 등이 떠오르지 않으랴.

이제 집 또한 그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려 한다. 할머니의 밭은기침으로 밤이 기울 때 긴 그림자가 된 고샅이 몸을 기울여 늙은 집을 가만히 끌어안는 모습을 상상한다. 할머니와 함께한 아주 오래된 늙은 집. 그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나눈 안식은 이제 끝났다. 철대문은 그 전의 사립문과 돌담과 빗장의 과거를 녹슨 몸으로 안고 있다. 깨진 장독은 그렁그렁 그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빗물처럼 담고 세월을 인내하고 있다. 흙에 덮인 신발은 또 어쩌랴.

제 몸과 함께 부대꼈던 사람의 뼈와 발목과 흰 정강이를 풍화된 바위처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빈집이 그동안 껴안았던 기억을 뒤지며 마당을 서성거리는데 세월이 뒤란의 돌담 위로 낡은 시네마 필름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제 몸을 세우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겨울나무가 산골의 애틋한 해거름 풍경을 목판화처럼 새기고 있는 광경 안에서.

집이 천천히 몸을 구부린다.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듬성듬성 빠진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는다. 머리 위에서 흩날리는 풀잎을 주름진 손으로 만진다. 드러난 갈비뼈처럼, 세월이 쌓여 검게 변한 서까래를 어루만지다가 견뎌온 젊은 날의 생애를 회상한다. 그가 지나온 빛나던 바다, 혹은 절망의 소용돌이를 반추하거나 질풍과 노도, 그리고 우울과 안식을 꺼내 주름진 손안에서 쓸쓸히 궁굴린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저 희미한 오감만 남은 그의 손바닥이 너무 얇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 고

피겨스타 김연아 같은 벤처스타를 기다리며

김 진 형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일년도 채 남지 않았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만큼 다양한 동계스포츠 종목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김연아'라는 한 명의 스타 선수가 있다.

한 명의 스타가 미치는 파급효과는 단순 일반인들의 관심 증가를 넘어 저변확대와 생태계에도 많은 변화를 준다. 그중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많은 후배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것이다. 실제로 김연아 선수를 보며 많은 어린이들이 피겨스케이팅를 시작했고, 제2의 김연아를 꿈꾸며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가 적지 않다.

그 결과 우리나라 피겨 스케이팅의 수준은 많이 높아졌으며, 현재 포스트 김연아로 불리는 박소현, 최다빈, 차준환 등 여러 명의 피겨 꿈나무들이 세계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비단 피겨 이야기만이 아니다. 박세리라는 골프스타가 탄생한 후 제2의 박세리를 꿈꾸던 많은 여성 골퍼들이 현재 전 세계를 누비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제 우리 창업벤처기업에게도 이런 글로벌 스타벤처기업이 필요하다. 미국의 스티브 잡스가 제2의 스티브잡스 꿈꾸는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실리콘밸리로 모이게 했듯, 중국의 마윈이 제2의 마윈을 꿈꾸는 중국 청년들에게 촹커열풍을 일으켰듯 우리나라에도 스타벤처기업이 필요하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각박한 현실 속에 '꿈'과 '도전'이라는 단어는 드라마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이상적인 이야기로만 바뀌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창업에 나서기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곱지않은 시선, 금전적 고충을 견디지 못하면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엔젤투자 같은 육성정책은 실리콘밸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 수준 또한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규모는 좀 다르겠지만, 정부차원의 지원은 오히려 더 많다.

이처럼 정부의 노력과 지원은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스티브잡스나 마윈처럼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창업·벤처기업의 성공을 보는 것보다 더 좋은 마중물은 없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가까운 곳에서, 내 주변에서 스타벤처기업의 탄생이 절실하다.

때마침 중소기업청에서도 유망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도약패키지지원사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글로벌 지원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스타벤처기업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장에서 검증된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시장진입 및 성장촉진을 집중 지원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사업화 자금 지원은 물론 유통·글로벌 진출·기업공개 및 상장 촉진까지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대기업만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스티브잡스나 마윈은 등장할 수 없다. 바둑 인공지능(AI) 알파고의 등장처럼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직업은 미래에는 없어질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 당신의 꿈을 실현하라!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이지만 용기를 내어 도전한다면 당신이 바로 김연아가 될 것이고, 박세리가 될 것이다. 열정을 가지고 꿈을 실현하고 있는 그들 중 우리 지역 창업붐의 마중물이 될 스타 벤처기업의 탄생을 기대해 본다.

社 說

그 차가운 물속에서 3년 세월 어찌 견뎠을까

1073일 만에 인양된 세월호에서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다. 그 차가운 물속에서 3년 세월을 어찌 견뎠을까. 발견 소식이 전해진 어제 오후, 미수습자 가족들은 또다시 설움에 복받쳐 목메어 울었다. 3년간 기다려온 미수습자 9명의 가족들과 희생자 유족들의 생채기 난 가슴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해양수산부 세월호 선체인양추진단은 어제 오전 11시25분쯤 목포 신항으로 이동하기 위한 준비 작업 중 현장 근무 인력이 반잠수식 선박 갑판 위에서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4~18㎝ 크기의 유골 6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발견된 유골은 인근 병원으로 운구됐는데 유전자 감식에는 2~3주가 소요될 전망이라고 한다.

세월호 침몰 미수습자는 안산 단원고 학생 조은화 양(2-1반), 허다윤 양(2-2반), 남현철 군(2-6반), 박영인 군(2-6반), 고창석 선생님, 양승진 선생님과 일반인 권재근 씨, 권혁규 군, 이영숙 씨 등 총 9명이다. 해수부는 2014년 10월28일 단원고 여학생 황지현 양의 시신을 수습한 뒤 그 이후로는 한 명도 찾지 못했다.

세월호 선체를 우여곡절 끝에 인양한 첫째 목적은 9명의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다. 그동안 미수습자 가족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속에서 세월호가 수면 위로 떠오를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미수습자 수색은 한 점 허점이 없도록 진행돼야만 한다. 이제 세월호를 온전하게 옮기는 데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침몰 해역의 미수습자 수습과 증거품·유류품 수거에도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참사 미수습자를 하루빨리 가족의 품에 안기게 하는 일은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들을 온전하게 수습하는 것이야말로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보듬는 일이며, 정부와 사회가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이기도 하다. 이제 선체 이동 과정에서 나머지 시신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철저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밸리 4차산업혁명 요람으로 키워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핵심이 될 에너지밸리가 4차산업혁명 요람으로 태동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최근 나주빛가람도시 한전 본사에서 글로벌텔레콤 등 23개 기업과 에너지밸리 투자유치협약을 체결, 에너지밸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주고 있다.

에너지밸리 조성은 지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만 3년도 안 돼 200개의 기업이 투자협약을 마쳤다. 누적 투자 금액은 8810억 원으로 6086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에너지신산업 기업 13개 사와 전력기자재 기업 10개 사 등 총 23개 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강소기업들이 포함됐다. 투자 지역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광주·나주 지역에 고르게 분포돼 지역 미래 먹거리 창출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고 있다.

한전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 250개의 기업 유치를 비롯해서 대기업과 외국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에너지밸리 성공 기반을 다지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창업 지원과 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하고 광주 도시첨단산단에 기업들의 입주가 시작되면 에너지밸리 투자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자신감에 근거하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도지사도 에너지밸리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여는 핵심 동력산업이라는 데 공감하며 입주 기업들의 성공과 이를 통한 에너지밸리 조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및 나주시는 이에 머물지 않고 한전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기업 유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기업이 안심하고 경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이순자 자서전

이청준의 소설 '자서전들 쓰십시다'에서 자서전 대필로 먹고사는 주인공은 이렇게 말한다. "늘 과거를 미화하고 과장하려는 사람의 습성 때문에 기술(記述)의 공정성을 잃기 쉽다는 게 자서전 집필의 일반적인 애로입니다."

이런 인간의 습성 때문에 '모든 자서전은 소설적 허구'라는 말이 생겼을 것이다. '모든 소설은 자서전'이라고 했던 스페인의 작가이자 철학자 미겔 데 우나무노의 말과도 같은 맥락이다. 소설이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인 것처럼 자서전도 소설처럼 허구라는 것이다.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자서전이 회고나 참회보다 변명이나 자랑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의 자서전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신은 외롭지 않다'라는 제목부터가 자기 남편의 입장에 서서 역사를 바라보고, 왜곡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의 퇴임이 신군부의 강압에 의한 것인데도 "최 전 대통령이 오히려 남편에게 후임이 돼 줄 것을 간곡하게 권유했다"고 서술했다. 5·18에 대해서는 "저희 때문에 희생된 분들이 아니지만, 아니 우리 내외도 사실 5·18사태의 억울한 희생자"라고 후안무치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래도 부끄러움은 알았는지 이 씨는 일종의 '셀프 출판'을 했다. 아들 소유의 시공사라는 유명 출판사가 있는데도 새로 만든 '자작나무숲'이란 출판사에서 첫 책으로 출간한 것이다. 원래 '자작나무숲'은 5·18을 겪은 광주 출신이 만든 출판사로 2015년 폐업하기까지 5·18과 운동권을 다룬 소설집 등을 냈던 곳이다. 폐업했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될 리야 없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찜찜한 구석이 있다.

출간 시기를 두고도 말이 많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국면에 5·18을 폄훼하는 극우 세력에 편승해 자신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 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듯하다.

이순자 자서전에 이어 조만간 나온다는 전두환 회고록도 걱정이다. 회고록이란 제목을 달았으니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진실을 담아야 할 텐데, 자기 변명의 역사 왜곡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전 씨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자서전이나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일 것이다. /장필수 정치부 부장 bungy@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 제 부	220-0663
〈대표 FAX	222-4918〉		〈FAX 222-493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